

2019년 11월 17일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골 3:12-14)

<도입>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 중 하나가 사랑에 관한 것 같습니다. 종종 양심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라" (어원 루처)

이런 말은 실천을 강조하는 말 같지만 원리와 목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표지는 별이였습니다. 별이 없었다면 그들은 방향조차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쫓아가니 결국 별에 도착하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예수님과 깊은 동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사랑과 성숙'에 이어 성경적 사랑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은 성품이다

지난 시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환란 중에 인내하고, 인내할 때 연단(단련된 인격)을 받고, 연단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롬 5:3-8)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연단의 측면을 보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같은 성품적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관계와 공동체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 성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신앙과 성품은 떼어 수 없는 관계이지만 실제로 둘 사이에 격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신앙으로 성품을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는데 성품이나 사고 방식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 i) 바리새인들(종교인들)의 스스로 속이는 가짜 신앙이거나,
- ii) 신앙의 씨앗만 떨어져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식에 의존하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혼돈과 어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도울 길이 없습니다(예: 니고데모(요 3 장)).

[2]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할 것인지에 관해 100% 선택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믿거나, 사랑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싫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이 영원한 약속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의 실천에 대해 자율적 선택을 요구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21 장 - 예수님은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꾸짖으려고 하심도 아니고 배반한 이유를 따지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부활을 목도 한 후 지금 스스로 내린 결정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물쭈물 하였죠.

왜 우물쭈물 하였을까요? 배반의 잘못은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면 앞으로 닥칠 책임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만날 미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질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줄이면, 사랑은 결단(선택)이며 그 결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얻는 축복은 사람이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배반한 자를 다시 찾아가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책임지시는 실천(마 28:20)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사랑의 삶의 원리입니다.

[3]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따라서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탈피하게 합니다.

스콧 펙, '사랑은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사랑은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을 원하고 필요합니다' 라는 일반적 사랑의 고백은 나의 자기중심적 감정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앞섭니다. 자아의 영역을 초월하여 확장하는 사랑의 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유를 누리는 사랑은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넘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변화되는 길을 걷게 합니다.

<맺음>

13 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을 목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자유하셨는가를 보며, 그분의 사랑에 침잠하여 사랑의 결단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나의 어떤 성품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며, 어떤 성품이 가지치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2. 당신은 어려움이 닥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적 삶을 구현하는데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영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해 보세요.